CONDERI

MARKET & INDUSTRY INSIGHT | 대외 공개판

1조 달러를 넘은 날, 남은 것은 42.7%라는 숫자

A Trillion Dollars in Exports, and the 42.7 Percent Behind It

이 리포트가 다루는 것

11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한국의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이고, 1964년 1억 달러에서 62년 만에 1만 배가 된 기록입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5,137.89로 이틀째 올랐고 코스닥은 3.32%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을 만든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타법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 원·달러는 1,330원에 머물렀고, 미국에서는 연준의 12월 인상이 기정사실로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앤트로픽은 813억 달러를 조달하며 사상 최대 상장을 마쳤지만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하루에 겹친 다섯 개의 숫자 — 수출 1조 달러, 반도체 42.7%, 코스피 5,137.89, 앤트로픽 97.17달러, 청년 고용 48개월 감소 — 를 하나의 구조로 읽습니다.

1조 달러
연간 수출 첫 돌파
세계 4번째

42.7%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
1년 전 24.4%

5,137.89
코스피 종가
+70.45p(+1.39%)

97.17$
앤트로픽 첫날 종가
공모가 대비 +17.1%

I 수출
62년 만의 1만 배,
그리고 42.7%

II–III 시장
수능일 단축장,
자사주가 받친 지수

IV–V 자본·금리
앤트로픽 97.17달러,
12월 인상 기정사실

VI–VIII 산업·교육
48개월 청년 고용,
76.8%의 AI 사용

Executive Summary / 요약

Record exports, record youth unemployment, one structure

1조 달러	4,514억	−4,036억	1,330.0
연간 수출(11-19 14:09:38)	기타법인 코스피 순매수(억원)	외국인 순매도 5거래일째	원·달러 주간 종가

오늘의 결론 — 사상 최대 수출과 사상 최장 청년 고용 한파가 같은 날 확인됐다

11월 19일 한국 경제에는 두 개의 기록이 동시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수출 1조 달러, 다른 하나는 청년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두 숫자는 모순이 아니라 같은 구조의 양면입니다. 수출을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이고, 반도체는 사람을 가장 적게 쓰는 성장 동력입니다. 1~10월 반도체 수출은 3,968억 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치의 세 배에 가까웠지만, 같은 기간 정보통신업의 청년 취업자는 6만200명(24.3%) 줄었습니다. 산업이 커져도 늘어난 일자리가 청년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시장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코스피는 올랐지만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팔았고, 지수를 받아낸 것은 자사주를 사들인 기타법인이었습니다.

① 수출 — 62년 만의 1만 배

1964년 1억 달러에서 2026년 1조 달러. 지난해 7,000억 달러에서 1년 만에 3,0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연간 수출을 1조 1,700억 달러로 전망합니다.

② 집중 — 수출의 42.7%가 반도체

1~10월 반도체 3,968억 달러. 비중은 1년 전 24.4%에서 42.7%로 18.3%포인트 올랐습니다. 20대 품목 중 16개가 늘었지만 증가율의 대부분은 메모리에서 나왔습니다.

③ 시장 — 외국인이 판 것을 법인이 받았다

11월 19일 코스피 5,137.89(+1.39%), 코스닥 684.81(+3.32%). 외국인 −4,036억, 개인 −652억, 기관 +192억, 기타법인 +4,514억. SK하이닉스 자사주 4,019억원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기록의 명암

1조 달러는 20대 품목 중 16개가 늘어난 결과이지만, 증가율의 대부분은 메모리 단가에서 나왔습니다.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에서 반도체는 140.7, 생활용품은 79.0입니다. 한 품목이 사이클을 타면 전체 숫자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다음 확인 지점

① 외국인 순매수 전환(3거래일 기준) ② 12월 연준 인상 폭 ③ 11월 수출입 동향(12월 1일) ④ 앤트로픽 상장 후 첫 5거래일 ⑤ 청년 고용의 반등 여부(12월 중순 발표). 다섯 지표가 이 리포트의 가설을 검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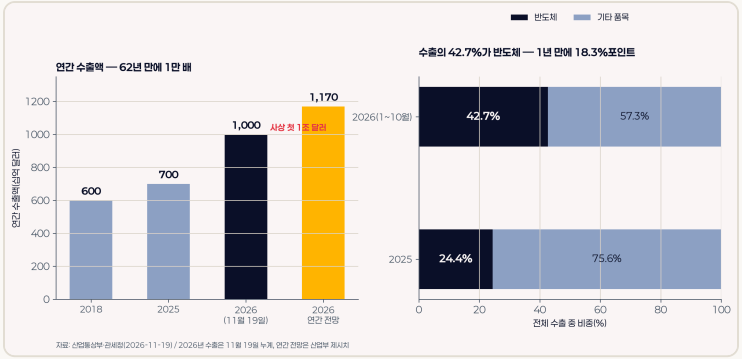
이 리포트의 방법 — 다섯 개의 숫자를 하나의 구조로 읽는 방식

수출 통계는 산업통상부·관세청의 잠정 집계(11월 19일 14시 9분 38초 기준), 시장 수치는 한국거래소 정규장 종가, 미국 지수는 11월 19일(현지) 종가, 자본시장 수치는 공모 조건 공고와 거래소 발표, 고용 지표는 국가데이터처 2026년 10월 고용동향과 한국은행 이슈노트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추정치와 확정치를 구분해 표기했고, 전망은 산업통상부·기관이 제시한 값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 줄 수출은 반도체가 만들었고, 지수는 자사주가 받쳤고, 청년 고용은 48개월째 줄었다 — 세 숫자가 같은 구조를 말한다

I. 수출 — 62년 만에 1만 배, 세계 4번째

Korea crosses USD 1 trillion in annual exports



자료: 산업통상부·관세청(2026-11-19) / 2026년 수출은 11월 19일 누계, 연간 전망은 산업부 제시치

자료: 산업통상부·관세청(2026-11-19)

14시 9분 38초 — 숫자가 아니라 사건이 된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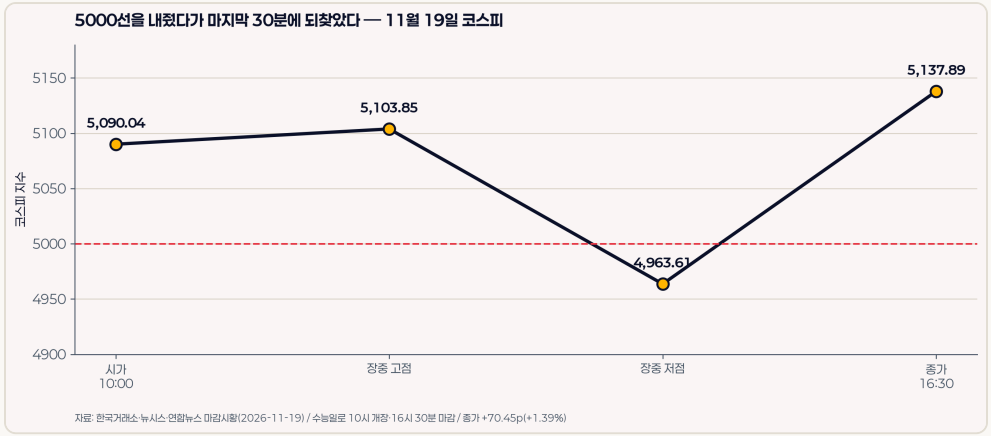
산업통상부는 11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를 기준으로 연간 누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964년 1억 달러에서 62년 만에 1만 배, 지난해 7,000억 달러에서 1년 만에 3,000억 달러가 늘어난 속도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1~8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52.9%로 대만(43.8%), 중국(19.3%), 미국(14.6%), 일본(7.7%)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해에 나온 기록이라는 점이 이 숫자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품목	1~10월 수출	비교	해석
반도체	3,968억 달러	기존 연간 최대 1,354억 달러의 3배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성장률을 만들었다
컴퓨터	451억 달러	기존 최대치의 3배 이상	SSD 등 데이터 저장장치 수요
석유제품	575억 달러	단가 t당 681→1,105달러(+62%)	물량이 아니라 단가가 만든 실적
소비재	화장품 124억 달러	지난해 연간 114억 달러 초과	바이오 152억, 농수산식품 108억으로 역대 최대

관찰 1조 달러는 반도체가 만든 기록이고, 반도체는 사람을 가장 적게 쓰는 성장 동력이다

II. 시장 — 5000선을 내줬다가 마지막에 되찾은 하루

KOSPI 5,137.89 (+1.39%) · KOSDAQ 684.81 (+3.32%)



자료: 한국거래소·뉴시스·연합뉴스 마감시황(2026-11-19)

수능일 단축장이 만든 변동성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으로 이날 증시는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열려 오후 4시 30분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090.04로 출발해 5,103.85까지 올랐다가 4,963.61까지 밀렸고, 오후 들어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5,137.8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더 크게 움직였다

코스닥은 22.00포인트(3.32%) 오른 684.8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1.39%)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대형주 집중 매수와 중소형주 순환매가 같은 날 겹쳤다는 뜻이고, 이는 지수 방향보다 수급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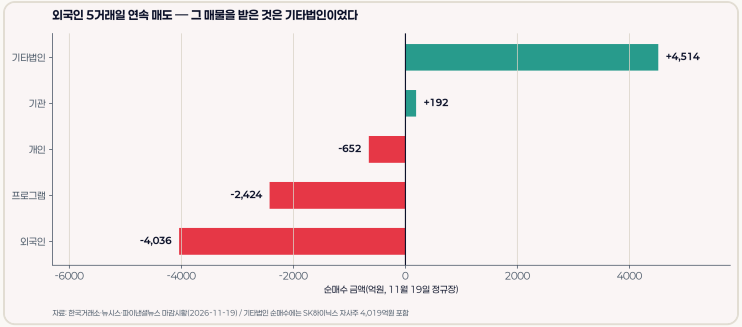
오후 2시 반의 촉매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 30분 이후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수출 통계가 지수에 반영되는 경로는 실적 기대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이날 상승의 절반은 숫자가 아니라 뉴스가 만든 것입니다.

항목	11월 19일	비교
코스피	5,137.89 (+1.39%)	이틀 연속 상승, 5,100선 회복
코스닥	684.81 (+3.32%)	코스피 상승률의 2.4배
원·달러	1,330.0원	주간 거래 종료 기준
코스피200 선물	거래대금 32.0조원	외국인 −1,690억, 개인 −760억

III. 수급 — 지수를 받친 것은 자사주였다

Who bought the index while foreigners sold



자료: 한국거래소·뉴시스(2026-11-19)

구분	코스피	해석
외국인	−4,036억원	5거래일 연속 순매도. 지수 상승에도 팔았다
개인	−652억원	오전 매수 우위에서 오후 매도로 전환
기관	+192억원	금융투자 중심의 소규모 매수
기타법인	+4,514억원	SK하이닉스 자사주 4,019억원이 중심(프로그램은 −2,42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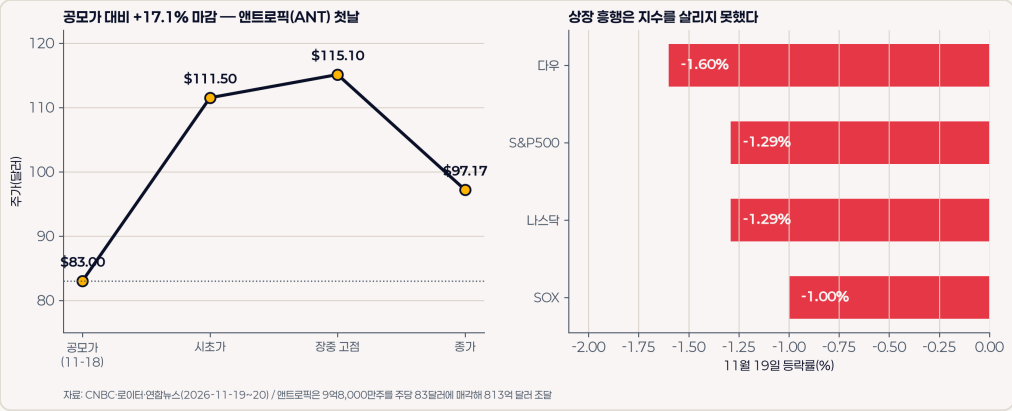
자사주가 지수를 받치는 구조 — 좋은 신호인가

이날 지수를 떠받친 것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자사주 35만 주를 4,019억원에 직접 취득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 정책으로는 타당하지만, 지수 상승의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발행기업 자신이라는 점은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끝난 뒤 외국인이 돌아서는지,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가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코스닥 순환매가 사흘 이상 이어지는지입니다.

수급 **외국인이 팔고 법인이 샀다 — 지수의 방향보다 매수 주체의 성격이 중요하다**

IV. 자본 — 앤트로픽 상장 첫날, 97.17달러

The largest listing on record, and a falling market



자료: CNBC·로이터·연합뉴스(2026-11-19~20)

사상 최대 상장 — 813억 달러를 조달하고 17.1% 오른 채 마감

앤트로픽은 11월 18일 공모가를 희망 범위(70~78달러)를 웃도는 주당 83달러로 확정하고 9억8,000만주를 매각해 813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11월 19일 나스닥에서 ANT로 첫 거래를 시작한 주가는 111.50달러(공모가 대비 +34.3%)에 시초가가 형성됐고, 장중 115.10달러까지 올랐다가 97.1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17.1%입니다. 종가 기준 완전희석 시가총액은 1조7,500억 달러, 첫 거래량은 8억4,600만 주로 스페이스X 상장일(5억2,200만 주)을 크게 넘었습니다.

상장이 증명한 것

대형 AI 기업에 대한 자본 수요는 살아 있습니다. 공모 물량의 6배가 넘는 기관 주문이 몰렸고, 공모가가 희망 범위를 넘어 확정됐습니다. 자본시장이 AI 모델 사업에 프리미엄을 계속 지불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장이 증명하지 못한 것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 회복입니다. 같은 날 다우 −1.60%, S&P500 −1.29%, 나스닥 −1.29%, 필라델피아 반도체 −1.0%였습니다. 캐피털이코노믹스 조 마허 이코노미스트는 "기술주 열기를 되살리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옮기는 두 가지

첫째, 메모리 수요의 방향은 유지됩니다. 둘째, 투자 유치 협상의 비교 기준이 바뀝니다. 매출 배수보다 연환산 매출과 총이익률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이 됩니다.

자본 자본은 모델에 몰렸고, 시장은 지수에 등을 돌렸다 — 두 사실은 모순이 아니다

V. 금리 — 12월 인상이 기정사실이 됐다

The Fed is still hiking, and capex answers to credit

5.09%
미 국채 10년물

−1.60%
다우존스 11-19

84.60$
WTI 장중(+2%)

6%
12월 50bp 인상 확률

연준은 다시 인상한다 — 2026년의 금리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월 18일 공개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거의 모든 위원이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물가가 예상을 웃돌 경우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CNBC 인터뷰에서 서비스 물가 확산을 우려하며 더 공격적인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12월 0.25%포인트 인상을 거의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0.5%포인트 가능성도 6% 정도로 가격에 넣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5.07%에서 5.09%로 올랐고 달러지수는 19개월 고점에 머물렀습니다.

채널	한국 시장에 미치는 경로	확인 지표
할인율	성장주 밸류에이션 압박. 코스닥과 바이오·플랫폼에 먼저 반영	나스닥·코스닥의 상대 등락
환율	원·달러 1,330원 유지. 외국인 원화자산 매력도 제한	1,320원 이탈 여부
조달 비용	AI 인프라·데이터센터의 자본비용 상승. 회수 기간 재계산 필요	회사채 스프레드
정책	12월 인상 시 국내 기준금리 경로와 가계부채 관리 압력	한국은행 금통위 성명

금리가 자본지출을 심판하는 국면

금리 인상 국면에서 설비투자는 두 번 평가받습니다. 사업의 수익률과 조달 비용입니다. 2026년 3분기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자유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에서 10년물이 5%대에 머물면, 설비투자 계획은 주가가 아니라 채권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데이터센터·AI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은 할인율 가정을 5%대 무위험 금리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

수출 호조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면 금리 인하 명분이 줄어듭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함께 봐야 하는 상황에서 연준의 인상은 국내 인하 시점을 뒤로 미는 요인입니다.

기업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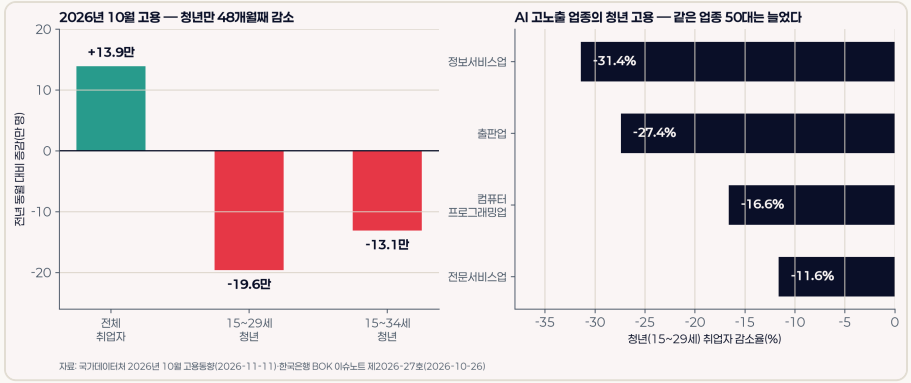
변동금리 조달 비중이 높은 기업은 12월 FOMC 전에 고정금리 전환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5%대 무위험금리에서는 1%포인트 차이가 10년 프로젝트의 손익분기점을 크게 바꿉니다.

투자자의 시선

금리 인상기에는 이익 성장률보다 이익의 현금 전환율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은 늘지만 자유현금흐름이 줄어드는 기업은 할인율 상승에 더 취약합니다.

VI. 고용 — 1조 달러와 48개월의 역설

Exports at a record, youth employment at a record low



자료: 국가데이터처(2026-11-11)·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6-27호

수출은 사상 최대, 청년 고용은 48개월째 감소

2026년 10월 전체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9,000명 늘었고,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습니다. 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 떨어져 2020년 10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20~24세만 보면 취업자가 11만9,700명 줄었는데, 그 3분의 2인 7만9,800명이 고용률 하락 몫이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가 아니라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긴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의 진단

최근 4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28만5,000개 가운데 26만8,000개(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만 한은은 AI만을 원인으로 보지 않고,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으로 약해지던 경력 사다리를 AI가 더 빠르게 무너뜨렸다고 봅니다.

기업의 AI 사용은 이미 보편적

근로자의 업무용 생성형 AI 활용률은 2025년 51.8%에서 2026년 66.5%로 14.7%포인트 올랐고, 주 40시간 기준 절감 시간은 1.5시간에서 3.7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절감 시간과 처리량·품질 향상의 상관관계는 아직 약합니다.

정책의 크기

2027년 예산안에 AI 훈련 수료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145억원(750명), K디지털트레이닝 6,089억원(4만7,000명)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단계이므로 실제 규모는 국회 심의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 성장은 반도체가 만들고 일자리는 서비스가 만든다 — 그 둘이 갈라진 것이 2026년의 구조다

VII. 산업 — 자본은 소프트웨어에서 물리 세계로

Where AI capital went on November 19

딜	규모	밸류에이션	읽는 법
Isomorphic Labs(영국) Series C	50억 달러	—	AI 신약 단일 라운드 최대. Greenoaks·세쿼이아 공동 리드
Genesis AI(프랑스) Series A	5억 달러	35억 달러	범용 로봇. 엔비디아·AMD벤처스·삼성넥스트 참여
베리에이셔널(온체인 파생) Series B	1억1,000만 달러	15억 달러	국내 발굴 유니콘. 6개월 만에 두 배 조달
Model ML(런던) Series B	2억5,000만 달러	15억 달러	금융 리서치 에이전트. 창업 3년 누적 3억5,000만 달러
Npay 스타트업 출자 연계	154억원 펀드	—	KB증권 20억원 출자. 지역 거점 VC 첫 연결 사례

자본이 소프트웨어에서 물리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11월 19일 하루에만 AI 자본의 방향을 보여주는 딜이 여럿 나왔습니다. 가장 큰 라운드는 신약이었고(Isomorphic Labs 50억 달러), 두 번째는 로봇이었습니다(Genesis AI 5억 달러). 크런치베이스 기준 2026년 1~3분기 로보틱스 스타트업 조달액은 355억 달러, 음성 AI는 연초 이후 95억 달러로 2025년 대비 67% 늘었습니다. 반면 딜 건수는 273건에서 154건으로 줄었습니다. 자금이 여러 기업에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소수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국내 시장의 온도

효성벤처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닥과 뷰티테크 앳홈에 투자했고, 네이버페이 스타트업 플랫폼을 통해 KB증권이 올산 거점 VC 유니스트기술지주가 조성하는 154억원 펀드에 2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지역·초기 기업으로 모험자본이 내려오는 첫 사례입니다.

창업가에게

자본시장은 이제 "AI를 쓴다"가 아니라 "어떤 물리적 결과를 만든다"를 묻습니다. 신약 후보물질, 로봇의 멀티스텝 작업, 금융 분석의 자동화처럼 결과물이 검증 가능한 영역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숫자로 보는 2026년 자본시장의 선택

음성 AI 스타트업은 2026년 들어 95억 달러를 조달해 전년 대비 67% 늘었지만 딜 건수는 273건에서 154건으로 줄었습니다. 로보틱스는 1~3분기에 355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자금이 늘고 딜이 줄었다는 것은 평균 티켓이 커졌다는 뜻이고, 이는 곧 후기 단계 기업으로 자본이 쏠렸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찰됩니다.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네스트 19기 데모데이(9개사)와 IBK창공 Fly High 데모데이가 끝났고, 11월 24일 펜테크 데모데이, 11월 30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데모데이(15개사, 목표 193억원)가 남아 있습니다.

자본 자본의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결과로 옮겨가고 있다

Ⅷ. 에듀테크 — 사용률 76.8%, 그대로 쓴 비율 70.5%

Students use AI widely and copy it just as widely

AI를 쓰는 학생 76.8%, 그대로 옮겨 쓴 학생 70.5%

에듀플렉스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중3~고3 학생 9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한 달간 공부에 AI를 사용한 학생은 76.8%였습니다. 이 가운데 70.5%가 AI가 만든 답이나 글을 거의 그대로 옮겨 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숙제나 수행평가 글을 AI에 대신 써달라고 요청한 경험은 56.3%였고, 주된 사용 목적도 "글 대신 쓰기"(32.0%)가 "자료 찾기"(30.1%)를 앞질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대필 경험률은 69.2%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표	수치	해석
AI 사용 경험(최근 한 달)	76.8%	학습 도구로 이미 보편화
AI 답·글 그대로 옮겨 쓴 경험	70.5%	사용과 표절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
AI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학생 중 복사 경험	64.1%	자기 인식과 실제 행동의 괴리
AI 사용 후 능력이 약해졌다고 느낀 비율	83.1%	사고력 34.9%, 글쓰기 28.1%
자기주도 습관 보유 집단의 복사 경험	21.4%	미보유 집단 44.9%와 23.5%포인트 차

학교의 대응

삼성전자는 11월 16일부터 갤럭시 XR을 활용한 체험 과정을 "갤럭시 AI 클래스"에 도입했습니다. 2학기 모집 첫날 173개교·약 2만2,000명이 신청했고, 누적 수료생은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7만명을 더 교육해 2년 누적 25만명이 목표입니다.

정책의 방향

경기도교육청은 11월 9일 공청회에서 학교급별 AI 활용 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초등은 교사 감독 아래 검증된 교육용 AI만, 중등은 교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고등은 출처와 이용 내역 공개를 전제로 허용하는 3단 구조입니다. 2027년 1월 5일 선포식에서 정책 방향이 확정됩니다.

교과서의 시간표

교육부의 AI 교과서는 초6·중2·고8 등 16개 과목을 현장 교사가 직접 집필합니다. 2026년 역량 강화·개발, 2027년 시범 적용·심의, 2028년 3월 정식 적용 순서입니다. 도입 속도보다 검증 절차가 먼저 설계되는 구조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에듀테크 — 10개국 지도가 만들어진 이유

한국디지털교육협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1월 19일 제2차 에듀테크 산업계 포럼에서 글로벌 에듀맵(G-EdMap)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진출국과 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태국·중국·인도 등 관심 국가 10개국의 교육 정책과 시장 정보를 담았고, 올해 최신 동향 콘텐츠 1,950건을 등록해 핵심 정보 다운로드 326건, 정기구독 51회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앱미디어·피클랩·에누마코리아가 해외 진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내수 시장의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 경로는 해외로 이동합니다.

교육 AI를 쓰는 것과 AI에 배우는 것은 다르다 — 76.8%와 70.5% 사이에 설계의 자리가 있다

IX. 실행 — 오늘 확인하고 90일 안에 끝낼 다섯 가지

Actionable checklist

구분	90일 안에 할 일	판단 기준
수출 의존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경쟁력 점검	4분기 EBSI: 반도체 140.7 vs 생활용품 79.0
수급	자사주·배당 등 주주환원과 성장 투자의 배분 재검토	자사주 매입 종료 후 외국인 순매수 전환 여부
금리	AI 인프라 투자 할인율을 5%대 무위험금리로 재계산	10년물 5.09% 유지 기간
고용	AI 도입으로 줄어든 초급 직무와 새로 만든 직무를 함께 기록	자체 인사 데이터(외부 통계보다 우선)
교육	AI 사용률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산출물 비중을 측정	학생 산출물의 출처 표기율

이 리포트를 인용할 때

모든 수치는 발행일 기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며, 출처는 각 도표 하단에 표기했습니다. 수출 통계는 산업통상부·관세청 잠정 집계이고, 고용 지표는 국가데이터처 2026년 10월 고용동향입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경우 원문 공시와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시점	확인할 일정	이 리포트와의 연결
11월 하순	11월 수출입 동향(12월 1일 발표)	1조 달러 이후 증가율의 지속성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	인상 폭 25bp vs 50bp
12월 중순	11월 고용동향	청년 취업자 감소세 49개월 여부
2027년 1월 5일	경기교육청 AI 교육 전환 선포	학교급별 활용 기준의 확정
2027년 예산	국회 심의	청년 AI 첫 일자리·K디지털트레이닝 규모

행동 기록은 반도체가 만들고, 다음 10년은 그 기록을 견딜 산업이 결정한다

English Summary / 영문 요약

Exports, the market, capital and employment on November 19

Korea passes USD 1 trillion in annual exports

At 2:09 p.m. on November 19 Korea became the fourth country to exceed USD 1 trillion in annual exports, after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China, and the first to do so in 19 years. Exports reached USD 100 million in 1964, so the total has grown ten-thousand-fold in 62 years. Cumulative exports were USD 614.8 billion at the same point last year, more than 60% below the current figure,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pects USD 1.17 trillion for the full year. Semiconductors accounted for USD 396.8 billion in the first ten months, nearly three times the previous annual record of USD 135.4 billion, and their share of total exports rose to 42.7% from 24.4%. Computers reached USD 45.1 billion, petroleum products USD 57.5 billion and cosmetics USD 12.4 billion. Sixteen of twenty major export categories grew.

Seoul closes higher, New York lower

The KOSPI closed at 5,137.89, up 70.45 points or 1.39%, after trading between 4,963.61 and 5,103.85 in a session that opened at 10 a.m. and closed at 4:30 p.m. because of the national university entrance exam. The KOSDAQ gained 3.32% to 684.81. Foreigners sold KRW 403.6 billion for a fifth consecutive session, individuals sold KRW 65.2 billion, institutions bought KRW 19.2 billion and other corporations bought KRW 451.4 billion, including KRW 401.9 billion of SK hynix treasury shares. The won closed at 1,330.0 per dollar. In New York the Dow fell 1.60% to 49,397.05, the S&P 500 lost 1.29% to 7,230.32 and the Nasdaq fell 1.29% to 24,113.44 despite Anthropic pricing 980 million shares at USD 83 to raise USD 81.3 billion.

Anthropic, the Fed and Korean employment

Anthropic opened at USD 111.50, peaked at USD 115.10 and closed at USD 97.17, 17.1% above its offering price, with a fully diluted valuation of USD 1.75 trillion and 846 million shares traded. Minutes of the Fed's October meeting showed nearly all officials saw a need for further increases, and markets price a 25-basis-point rise in December as near certain; the ten-year Treasury yield rose to 5.09%. Korea's October employment report showed total employment up 139,000 while youth employment fell 196,000 for a 48th consecutive month, with the youth employment rate at 42.9%. The Bank of Korea estimates that 268,000 of the 285,000 youth jobs lost over four years were in industries highly expos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Summary **Record exports were built by semiconductors; the jobs that follow are built elsewhere**

발행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 문서등록번호 CONDERI-IR-2026-11-20 | 문의 contact@conderi.com